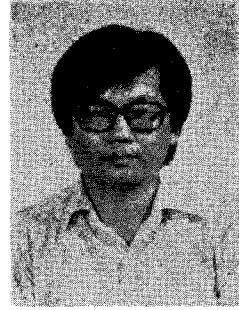


소비자 욕구에 맞는 상품성 높은 양계산물 생산을



박 동 희

(제일제당<주> 사료사업부
사료판매 2부장)

다 사दान했던 1985년을 보내고 희망찬 1986년도를 맞이하였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 양계업계를 이끌고 수고하신 양계협회 회장님과 임직원님 그리고 모든 양계인들께 먼저 새해인사를 드린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 축산업계는 어느해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변화의 씨를 잉태한 한해 였다고 생각한다.

우선 배합사료 품질과 가격의 자율화조치 이후로 배합사료 경쟁이 주로 품질경쟁에 비중을 두어 왔으나 작년도에는 특히 산란계사료시장을 선두로 가격경쟁이 불붙어 연말까지 식을줄 몰랐다. 이는 국제 원료곡물가격의 하락에 따른 원가하락과 신규 재벌업체의 사료업계 본격참여라는 경쟁요소가 작용한 결과였으며, 특히 국산보리 사용으로 인한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경쟁을 추구한 것은 사료업계로서는 처음 있었던 일로 기억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축산업계에서도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자조금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 되었던 점이 기억되는 일로 남는다. 협회가 주축이 되어 선진외국의 제도를 연구조사하여 서울 및 각 지방에서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생각

한다. 또한 경남 양산군의 오경농장(대표 김 중경)에서는 위생란 처리를 위한 G. P센타를 설치 완공하여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고 새로운 상품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만든 점이 특히 생각나는 일이다.

이상으로 지난해의 우리 양계업계에 있었던 변화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으며 금년에 축산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양계산업분야에서 꼭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을 몇가지만 말씀드린다.

첫째, 신상품의 개발이다. 육계나 계란에서 신상품이라면 의아한 생각이 들겠지만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식품부를 가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계란이나 닭고기 보다 훨씬 더 보관하기 어려운 수산물이나 야채도 새로운 포장과 새로운 제품결합으로 소비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양계인들은 과연 얼마만큼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심각하게 대처하였는지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깨끗한 포장 손쉬운 단량 건강식품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여 어떠한 단백질 식품보다 훌륭하고 경제적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시안게임이 치루어지는 금년에 우리 양계인이 이룩해야하는 과제가 아닐런지?

들째, 이러한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가 필요하다.

계열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마련과 계열화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교육받은 사명감있는 사람들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를 금년 중에 마련하고 이에따른 인력 확보 및 훈련계획을 수립 하였으면 하는 기대이다.

세째, 신상품 유통조직의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광고홍보에 보다 신경을 쓰도록해야 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력하면 계란과 닭고기의 영양과 조리법, 기타 계란과 닭고기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과정 및 외국의 축산물소비 형태의 변화 등을 요약한 양계산물의 전부를 보여 줄 수 있는 비디오 필름과 문화영화필름을 금년도에는 기필코 만들어 최소한 협회·지부 사무실, 사료공장, 각급 교육기관에 배포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다. 특히 교육자료의 제작 배포 활용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적인 배포계획을 수립함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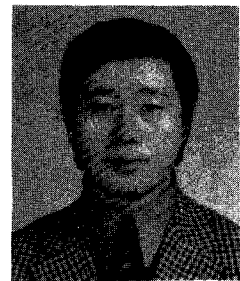
이러한 활용은 최근 15년 동안 축산물 소비증가 추세에서 제일 뒤진 양계산물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알맞는 산란계와 고기닭을 육종하는 목표를 확고히 설정하는 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분야는 종자싸움으로 승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바 미래의 종자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느껴진다.

1986년에는 보다 뜻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특히 우리 양계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비는바이다. ▣

원가절감을 위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김 병 기
(한국바이오텔화학<주>
학술부장)



19 85년도 소가격파동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채 저물어 갔다. 1986년 병인년 새해에는 다시 이러한 파동이란 단어는 축산업계에서 영원히 잊혀진 단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양계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빈다.

양계업은 축산업중에서는 가장 먼저 출발하였고 또한 가장 먼저 정착되었으나 최근 수년간의